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15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2-15
2021년 02월 15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44699461](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44699461)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년 02월 15일

차례

1. [언제나국가와자유는반대된다]	3
2. [아니, 원래일하던데서일하게해달라니까;;;]	3
3. [마, 고마해라!]	4

1. [언제나국가와자유는반대된다]

트랜스젠더에대한차별과혐오는문재인정부에들어서도계속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조사한트랜스젠더혐오차별실태조사에따르면트랜스젠더 10명중 6명이상이지난 1년간트랜스젠더라는이유로차별을경험했다고답했다.

조사에따르면, 법적으로성별정정을한응답자는 8% 에불과했는데그이유로답한가장많은응답이 (86%) 의료적조치비용에의한것이었다. 성별정정에필요한의료과정이크건강보험에서제외되는등으로인해온전히개인이경제적부담을져야하고비용을지불할수있더라도트랜스젠더에대한의학교육의부재, 의료인들의혐오차별등으로인해의료과정에서접근권침해문제까지겪는등쉽지않은일이다. 구직활동중에서도다수가트랜스젠더에혐오로인해구직에서어려움을겪는등경제적악순환까지되풀이되고있다.

이모든문제의기저에는역시권위에의한억압이존재한다. 지배계급이노동재생산을위해여성의섹슈얼리티를구속해왔듯국가는그권위를통해자신이정의한남성-여성의범주를벗어나는정체성을단속하였고오늘날최상의경우에조차우리는국가가허락한정체성만을인정받을수있다. 자신의성적정체성을규정할수있는존재는오직자신뿐이다. 권위가있는한자유가없듯국가가있는한우리의정체성또한진실로존재할수없다.

법적수단은그들이허락한정체성의범위에안주할뿐진실로필요한해방을이끌어낼수없다. 혐오와억압에맞서싸워, 국가와자본권력을폐지함으로써우리비로소우리자신이무엇인지외칠수있을것이다.

” 트랜스젠더차별당했다” 시스젠더는상상도못할혐오차별민낯” :
<https://www.vop.co.kr/A00001546918.html>

2. [아니, 원래일하던데서일하게해달라니까;;;]

2021 년새해, 그리고음력새해까지지난지금까지 LG 트윈타워청소노동자들은농성을이어가고있다. 요구안은간단하다. 재고용, 세글자다. 어려운이야기가아니지않은가.

그런데 LG 가발등에불이떨어지기는한모양이다. 해괴한주장을들고나오며 ‘아, 우리는해줄만큼해줬는데노조가안한답니다 ~’ 라는공작을펼치려는시도가보이는것이다. LG 는노조에 ‘LG 트윈타워대신인근의 LG 마포빌딩에서근무하는방안’ 을이야기했다. 하지만일을해본사람들이라면누구나알고있다. 내가원래일하던곳이아니라, 그것도평생을일하던곳이아니라새로운환경에서일

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적응하기까지의 애로 사항들을 말이다. 그저내가 일하던 곳에서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일하겠다는 주장이 뭐 그리 어려운 말이라고 이리저리 뱅뱅 말을 돌리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모를 일이다. 그럴 시간엔 차라리 업무에 이미 익숙한 인원들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도 LG 를 이만큼이라도 움직이게 한 데에는 정당한 몫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의 투쟁이 당연히 컸겠거니와, 불매운동으로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우리 모두의 힘도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LG 는 최근 1 사 1 촌 협약을 맺어 농어촌 지역과 상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내용 중에는 2 월 중 ' 마을 내 대학 신입생 자녀를 위해 노트북을 전달, 마을 회관과 경로당에 노후된 가전제품을 교체 지원 '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LG 가 이런 이미지 작업에 열심인 것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크게 상회하여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는 일을 먼저 처리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래야 1 사 1 촌 어찌구로 만들어 둔 제품 팔고 재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값 받고 팔 수 있지 않겠는가. 부디 지금이라도 LG 가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에 진지하게 응하기를 바란다.

”LG ” 농성 중 트윈타워 미화원 전원 고용 유지 ”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r>
” 해남군, LG 전자 1 사 1 촌자매결연협약 맺어 ”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031414591040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C

3. [마, 고마해라!]

차기 여당 대권주자들이 복지 정책을 놓고 의견다툼이 분분하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현행 복지 정책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까지 주창하고 있으며, 이낙연 대표 는 현행 복지 제도를 더 더욱 확충하고 강화 하자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이야기만 들어본다면 정말 다 좋게만 들린다. 지금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면서 인민들 주머니에 현찰을 딱딱 꽃아 넣어 준다는 말, 혹은 지금의 복지를 더 더욱 확충해서 인민들에게 복지를 더 잘 제공한다는 말. 너무나도 듣기 좋은 소리 아닌가? 부르주아 민주정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복무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전전전 대통령의 말대로 ' 꽃노래 ' 를 부르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상술했듯, 그저 ' 꽃노래 ' 일뿐이다.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그렇듯, 소위 부르주아들과 자본가들에게 의존해 서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거나, 당당하게 증세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대해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시장 자유를 외치는 이들은 말한다. 그런식의 증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기업이 다 떠나갈 거라고. 그리고 이 건 사실 틀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르주아들은 그럴 힘이 있을 뿐더러,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기업을 흩뿌리는 것은 각종 기업들에서 이미 자행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얼마나 증세와 복지 확대를 외치던, 경제 체제가 부르주아들의 손아귀에 놓여져 있는 이상 부르주아들의 시녀 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는 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유화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국유화가 어떤 일을 불러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20 세기 중 후반기, 영국과 서구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지켜보 면 자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는 국가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행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코 여전히 노동자 인민 대중은 국가와 새로운 형태의 자본 권력에 예속된다.

결국 해답은 단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사업장 운영, 그리고 노동자들이 조직한 조합과 인민들이 연합하여 직접, 자유롭게 결정 한 새로운 복지만이 해답이다. 경제 체제의 완벽한 전환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러니 민주당의 두 ' 대권 주자 ' 들에게 고한다.

” 마, 고마해라! ”

” 기본소득 vs 신복지체제... 이재명, 이낙연의 싸움이 아니다 ”

<http://naver.me/xuIf0o5S>